ISSN 1975-6178 (Print)
ISSN 2733-9904 (Online)
『어문논총』 제40호. 2022년 2월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omunnonchong* Vol 40. Feb. 2022
http://doi.org/10.24227/jkll.2022.02.40.175

남북 사전의 강원 방언 비교 연구
- <우리말샘>과 『조선말대사전(2017)』의 표제어를 대상으로

최윤*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우리말샘>과 『조선말대사전(2017)』
Ⅲ. 공통 등재 표제어 분석
Ⅳ. 단독 등재 표제어 분석
Ⅴ.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강원 방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연구로서 이 연구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강원 방언, 강원 지역어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강원 방언(지역어) 연구를 위한 답사에 활용할 어휘 목록을 만드는 것을 세부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우리말샘과 조선말대사전의 등재양상을 확인하여 등재 규모 및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3장에서는 양 사전에 공통적으로 등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사업팀 학술연구원

되어 있는 표제어 목록을 추출하고 이 가운데 일치도가 낮거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어휘를 재추출하여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조선말대사전(2017)에만 등재되어 있는 표제어 목록을 추출하고 이 가운데 타지역 방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강원 방언을 재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양 사전의 규모와 특성을 확인하고 약 200개 가량의 조사 대상 어휘를 선정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지역어, 방언, 강원, 강원도, 강원 방언, 사전, 우리말샘, 조선말대사전, 북한어, 조사 어휘

Ⅰ. 머리말

이 연구는, 강원 방언의 세부 분화 양상을 살피고 최종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강원 방언을 하나의 '지역어'로서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본고는 그 시작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강원 방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의 일환으로, 향후 강원 방언 조사를 위한 답사에서 활용할 어휘 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

1)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강원 방언(지역어)의 통합적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강원 방언을 비교·대조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남한의 강원방언(남강원 방언)과 북한의 강원방언(북강원 방언)의 분화 양상과 특성을 연구하는 것 역시 본고의 논의에 부합한다.

2) '지역어'와 '방언'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구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이 둘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방언'이 가지고 있는 '비규범성'으로 인해 이를 대체할 용어로서 '지역어'를 사용하거나 '방언'은 방언 구획과 관련된 학술적인 술어로, '지역어'는 해당 지역의 실제 발화 자료를 지칭하는 술어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본고에서는 '지역어'와 '방언'을 모두 사용하지만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구분하여 사용한다.

i) 방언: 한국어의 하위 부류. 여러 요인에 의해 상이한 언어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본고에서

"강원도(江原道)"는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도명(행정구역명)으로서, '지리적 특성'을 중요시하는 '방언' 및 '지역어'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서의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강원 방언' 또는 '강원 지역어' 연구는 남과 북 어느 한쪽의 연구만으로는 불완전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분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통합적 연구에 어려움이 있지만 비록 제한적인 연구가 될지라도 지금부터의 강원 방언, 강원 지역어 연구는 '개별'보다는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남북 강원 지역어 연구'의 첫 단계로서, 남한과 북한의 사전에 등재된 '강원 방언'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대조하여 남한과 북한의 '강원 방언'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계획되어 있는 '강원 지역어 연구'의 기초 자료이자 답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본고의 논의를 통해 마련될 자료는 '북강원 방언일 가능성이 높은 어휘들',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들'로서, 방언 분화에 대한 확장적 연구가 가능한 흥미로운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는 <겨레말큰사전>으로 대표되는 남북 공동 사전의 어휘 등재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는 언어학적 특성을 가지는 하나의 언어체계로 한정한다.

ii) 지역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 '지역 방언'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언어학적 특성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의식을 포괄한다.

위 구분에 따르면, '감재'는 '지슬(제주)', '잠자(경남)' 등과 음운론적, 형태론적으로 구분되는 '강원 방언'이다. 이와 달리, '강원 지역어'로서 '감재'는 언어학적 특성 외에 강원 지역을 대표하는 작물이자 '감자바우', '감자골'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역 문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언어(어휘)가 된다. 본 연구는 '강원 방언 연구'이지만 앞으로의 연구는 '강원 지역어' 연구를 목표로 한다.

Ⅱ. <우리말샘>과 『조선말대사전(2017)』

<우리말샘>과 『조선말대사전(2017)』에 대한 분석과 비교는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강원 방언'으로 등재된 표제어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주제로 하므로 양 사전의 특성과 전체적인 규모, 강원 방언으로 등재된 표제어의 규모 등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우리말샘



[그림 1] <우리말샘>의 '사전 통계'

<우리말샘>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다른 이름으로서 "사용자가 새로운 어휘를 직접 등록하거나 뜻풀이 등의 사전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3]" 개방형 인터넷 사전이다. 박광길, 최윤(2017:245-246)에서는 <우리말샘>의 특성을 '개방성', '연계성', '실용성'으로 정리하며 일반적 이용의 편리성과 연구 목적 이용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말샘>은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자료를 다양한 형식(포맷)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 연구 활용도가 매우 뛰어나

3) 국립국어원,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2016, 1쪽.

다. 본 연구는 방대한 양의 자료에서 특정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가공하여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우리말샘>의 존재는 본 연구의 시작 가능성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사전 통계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후 언급되는 '남한어' 또는 '남한의 표기' 등은 모두 <우리말샘> 표제어를 일컫는 것이다.

[표 1] 우리말샘의 품사별 표제어 등재 현황

품사	일상어		전문어	
	표제어 수	비율(%)	표제어 수	비율(%)
명사	300,558	62.372	256,619	96.641
동사	98,840	20.512	7,849	2.956
부사	32,483	6.741	5	0.002
형용사	29,250	6.07	78	0.029
품사 없음	8,099	1.681	64	0.024
관형사·명사	2,995	0.622	344	0.13
어미	2,817	0.585	0	0
감탄사	1,892	0.393	37	0.014
의존 명사	1,276	0.265	469	0.177
접사	895	0.186	5	0.002
대명사	823	0.171	12	0.005
조사	589	0.122	1	0
관형사	489	0.101	2	0.001
수사·관형사	395	0.082	0	0
수사	126	0.026	1	0
보조 동사	109	0.023	0	0
명사·부사	100	0.021	0	0
보조 형용사	51	0.011	0	0
감탄사·명사	35	0.007	52	0.02
관형사·감탄사	23	0.005	0	0
의존 명사·조사	14	0.003	0	0
대명사·감탄사	4	0.001	0	0

품사	일상어		전문어	
	표제어 수	비율(%)	표제어 수	비율(%)
동사·형용사	3	0.001	0	0
부사·감탄사	3	0.001	0	0
수사·관형사·명사	3	0.001	0	0
대명사·관형사	3	0.001	0	0
대명사·부사	1	0	0	0
합계	481,876	100	265,538	100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우리말샘>에는 총 481,876개의 일상어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 중 명사가 약 30만 개로 60%이상, 동사가 약 10만 개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미, 접사, 의존명사를 포함하여 총 13개의 품사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품사 통용의 시각을 범주 구분에 반영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2. 조선말대사전(2017)

<조선말대사전>은 출판된 북한어 사전 중에서 등재된 표제어의 수가 가장 많은 사전이다. 1992년에 『조선말대사전』이 처음 편찬된 이후 2006년에 첫 번째 증보판이[4], 2017년에 두 번째 증보판이 나왔다. 각 판본별로 간단히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말대사전』 판본별 서지사항

사전명	권수	출판년도	표제어 수	비고
조선말대사전	2권	1992	33만 개	이하 『조선(1992)』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권	2006	40만 개	이하 『조선(2006)』
조선말대사전(증보판)	4권	2017	44만 개	이하 『조선(2017)』

4) 『조선말대사전』의 첫 번째 증보판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권, 2~3권이 나누어 출판되었다. 여기에서는 1권 출판을 기준으로 하여 2006년에 출판된 것으로 기술함을 밝힌다.

위 [표 1]에 제시된 표제어 수는 해당 사전의 머리말에 표기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표제어 수와는 차이가 있다. 자료의 특성상 각 판본별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강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조선(1992)』의 규모를 살펴보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19)에서는 『조선(1992)』에 실린 실제 표제어 수가 352,850개임을 밝히고 있으며 한영균(1997)에서는 이 가운데 293,073개 항목의 어휘가 주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조선(2017)』의 규모는 김한샘(2020)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김한샘(2020:231)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선(2017)』의 머리말에 기술된 '44만 어휘'는 부표제어를 포함한 항목 수이며 미시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표제어는 약 40만 항목임을 대략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5].

『조선말대사전』에 대한 연구는 『조선(2006)』을 다룬 신중진(2015), 정유남(2019), 정유남·이길재(2019)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조선(1992)』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2차 증보판이자 최신판인 『조선(2017)』을 다룬 연구는 2022년 1월 현재까지 본고를 제외하면 김한샘(2020)이 유일하다. 다음 표는 김한샘(2020:232)에 제시된 정보[6]를 바탕으로 『조선(2017)』의 품사별 표제어 수를 재환산한 것이다.

[표 3] 『조선(2017)』의 품사별 표제어 등재 현황

품사	감동사	명사	동사	수사	뒤붙이	토	기타
개수	520	33,9120	20,000	240	240	760	160
비율	0.13	84.78	5.00	0.06	0.06	0.19	0.04
품사	부사	앞붙이	성어	형용사	관형사	대명사	합계
개수	20,520	200	1,120	16,760	120	200	400,000
비율	5.13	0.05	0.28	4.19	0.03	0.05	100

5) 김한샘(2020:231)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조선(2017)』은 『조선(1992)』를 기준으로 대부분 '명사'에 해당하는 어휘가 6만 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전체 표제어 수와 품사별 표제어 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상의 정보만으로는 대략적인 규모 파악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6) 전체 표제어 수는 약 '40만 항목'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각 품사별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위 표를 살펴보면, 『조선(2017)』에 등재된 표제어를 40만 개로 고정했을 때, 명사가 약 34만 개로 85% 정도, 부사와 동사가 약 2만 개로 각각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사를 앞붙이와 뒤붙이로 구분하고 토와 성어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품사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한과 다르게 품사 통용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품사로만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양 사전의 '강원 방언' 등재 양상 비교

1) 연구 대상 자료의 추출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말샘>은 자료를 연구 목적에 맞추어 검색하고 이를 분석이 용이한 파일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우리말샘>의 '자세히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단어', '지역어(방언)'을 선택하고 방언 지역을 '강원'으로 한정하여 검색한 자료를 엑셀로 내려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16,362개 표제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북한의 강원 방언의 경우에는 자료 추출을 위해 『조선(2017)』의 전체 표제어 중에서 "≪방언≫"으로 표시된 표제어 가운데 "(강원)"이라는 지역명이 표기된 것들을 일일이 추출하였다. 그 결과 북한어 총 1,041개 표제어가 추출되었으며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모두 엑셀 양식으로 정리하여 자료화하였다. 이 역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7].

2) 표제어 등재 양상

<우리말샘>과 『조선(2017)』 의 등재 방식을 비교하기 위해 두 사전

7) <우리말샘>이나 『조선(2017)』 모두 '강원'이 아닌 타지역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가리지 않고 모두 추출하였다.

에 공통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강원 방언'인 '가갭다(가볍다)'와 '가름매(가르마)'를 제시한다.

(1) <우리말샘>의 등재 양상

가. 가갭다「001」「형용사」「방언」'가볍다'의 방언(강원, 함경, 중국 길림성).

나. 가름매「001」「명사」「방언」'가르마'의 방언(강원, 경상, 전남, 충청).

(2)『조선(2017)』의 등재 양상

가. 가갭다 [형] 《방언》 가볍다. (함경, 량강, 강원)

나. 가름매 [명] 《방언》 가리마. (강원)

(1)과 (2)를 비교해 보면, 방언으로 한정할 경우 <우리말샘>과『조선(2017)』의 표제어 등재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가)와 (1나)를 비교해 보면 '가갭다'의 경우 '강원도'와 '함경도'에서 나타나는 방언 형태임을 표기한 것은 동일하나 <우리말샘>에서는 '중국 길림성'을,『조선(2017)』에서는 '양강도(량강도)'를 해당 표현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8]. 또한 (1나)와 (2나)를 비교하면 뜻풀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남한에서는 '가리매'에 해당하는 표준어가 '가르마'이며 북한의 문화어에서는 '가리마'인 것에 의한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어 / 문화어' 등록에 의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즉, 이후 논

8) 북한의 양강도는 중국의 길림성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두 지역 모두에서 '가갭다'가 사용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방언 지역의 표기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강원 방언'으로 등재된 표제어를 대상으로 하며 이외의 지역에 대한 차이는 연구 목적상 고려하지 않았다.

의될 내용에서 '가름매'는 '공통수록 어휘' 중 '뜻풀이가 일치하는 것'에 해당한다.

3) 통계적 비교

다음은 <우리말샘>과 『조선(2017)』의 표제어 중 '강원 방언'의 품사별 수와 비율이다.

[표 4] <우리말샘>의 '강원 방언' 품사별 표제어 등재 현황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대명사	관형사	관형사
개수	11,537	2,200	1,313	988	78	61	47	41
비율	70.51	13.45	8.02	6.04	0.48	0.37	0.29	0.25
품사	의존명사	어미	조사	품사없음	보조용언	접사	합계	
개수	35	22	17	16	4	3	16,362	
비율	0.21	0.13	0.10	0.10	0.02	0.02	100	

[표 5] 『조선(2017)』의 '강원 방언' 품사별 표제어 등재 현황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토	수사	앞붙이	합계
개수	875	75	34	26	2	2	1	1	1,016
비율	86.16	7.36	3.33	2.55	0.19	0.19	0.1	0.1	100

[표1]과 [표4]를 비교해 보면 <우리말샘>의 전체 표제어 대비 강원 방언 표제어 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총 481,876개 어휘 중 강원 방언으로 등재된 어휘는 16,362개로[9] 전체 어휘의 약 3.4%가 강원 방언에

9) 품사 통용의 관점으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i) 명사와 함께 감탄사, 부사, 관형사 등과 중복되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명사로 처리한다. 예) 감·명 - 고시레, 송고송고, 송구송구 등 11개 / 관·명 - 폔파적 / 명·부 - 먼전, 먼제, 먼첨 등 7개
ii) 감탄사와 관형사가 중복되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감탄사로 처리한다. 예) 관·감-엠벵할
iii) 부사와 감탄사가 중복되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사로 처리한다. 예) 부·감-왜서
iv) 수사와 관형사가 중복되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수사로 처리한다. 예) 수·관 - 다슷, 대여서, 대여슷 등 24개

해당한다. 또한 방언을 전체지역을 확대하고 북한어를 제외하고 검색하였을 때 전체 표제어 수는 109,962개이다. 따라서 남한 방언으로 등재된 표제어들 가운데 14.8% 정도가 강원 방언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과 [표5]를 비교해 보면 『조선(2017)』의 전체 표제어 대비 강원 방언 표제어 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전체 표제어 수를 40만 개로 보았을 때, 이 중 1,016개 어휘가 강원 방언으로 등재되어 있어 전체 어휘의 약 0.4%가 강원 방언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표제어 수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말샘>에 등재된 강원 방언 표제어 수가 훨씬 많다. 『조선(2017)』의 다른 북한 방언을 전수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강원 방언 추출 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양상은 전체 방언으로 확대해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말샘>이 보다 적극적으로 '방언'을 표제어로 등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듯하다. 먼저, 사전의 폐쇄성(개방성)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우리말샘>은 개방형 사전으로서 사용자가 직접 신규 등재어를 제시할 수 있다. <우리말샘>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본 결과 가장 최신 통계 자료인 2021년 12월, 방언의 표제어 수는 총 135,938개로 가장 오래된 통계자료인 2016년 9월의 방언 표제어 수 135,023개와 비교했을 때 약 1,000개의 방언이 신규 등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10] 이로 보아 규모의 확장성이 북한의 사전에 비해 매우 뛰어남을 알 수

10) 두 통계자료상 지역별 방언 등재어 추이는 다음과 같다.
i) 전라: 247, 경상: 235, 경북: 138, 제주: 115, 충청: 89, 전북: 41, 황해: 33, 충남: 30, 강원: 22, 경기: 10, 함경: 10, 충북: 8, 평안: 8, 중국 길림성: 6, 평북: 5, 중앙아시아: 2, 중국 흑룡강성: 1, 함북: 0, 함남: -1, 중국 요령성: -1, 평남: -1, 경남: -16, 전남: -66
2021년 12월 등재어 수에서 1996년 9월 등재어 수를 뺀 값으로 양수인 경우 그만큼 등재어 수가 늘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경남, 전남 방언 등의 경우 음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지만 검토 후 상위 범주인 함경, 전라 등으로 편입되었거나 삭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있다. 두 번째로는 음운론적 이형태의 등재 양상의 차이이다. <우리말샘>의 경우 음운론적 이형태를 모두 등재하였는데 북한의 경우 그렇지 않다[11][12]. 이 역시 사전의 집필 방향에 따른 규모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규범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남한은 민주주의, 지방자치 등으로 인해 방언을 '비규범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북한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언어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방언의 '비규범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차이와 이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사전 편찬에도 반영되어 있어, 방언의 사전 등재가 적극적이지 않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13].

Ⅲ. 공통 등재 표제어 분석

이번 장에서는 <우리말샘>과 『조선(2017)』에 등재된 표제어들 가운데 양 사전에 공통적으로 '강원 방언'으로 등재된 표제어들을 살펴본다.

<우리말샘>과 『조선(2017)』에 공통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표제어 수는 총 524개이다. 등재되어 있는 강원 방언 대비 비율은 다음과 같다.

---

11) 북한의 강원 방언에도 남한의 강원 방언에 해당하는 음운론적 이형태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으나 같은 방언권임을 고려하였을 때 많은 형태들이 공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운론적 변화 양상의 공통점을 확인하는 것 역시 방언 연구의 주제가 되므로 북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음운론적 이형태들을 확인하는 것은 또다른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듯하다.

12) 음운론적 이형태뿐만 아니라 동음이의어의 등재 양상 역시 다르다. 『조선(2017)』에서도 동음이의어를 등재하고 있지만 그 수가 남한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에 따른 양적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13) 정유남·이길재(2019:67)에서는 『조선말대사전』(2007)의 지역어 수가 다른 사전들(『우리말큰사전』(1991), 『금성국어대사전』(199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표준국어대사전>(2014, 웹))에 비해 월등히 적은 이유를 북한의 언어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표 6] 사전별 공통 표제어의 수와 비율

	우리말샘	조선(2017)
강원 방언 등재어 수	16,362개	1,016개
등재어 대비 비율	3.2%	51.4%

공통으로 등재된 표제어의 품사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14].

[표 7] 공통 표제어의 품사별 수와 비율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의존명사	합계
개수	461	33	21	8	1	524
비율	87.9	6.3	4.1	1.5	0.2	100

공통으로 등재된 표제어 524개 중 494개는 분석 결과 형태와 의미가 일치한다[15][16]. 이와는 다르게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표제어는 총 30개이다.

14) 품사 구분은 <우리말샘>을 기준으로 하며 품사 통용의 관점에서 명사와 부사로 중복되어 등재되어 있는 경우인 '먼제, 먼첨'의 경우 명사로 처리하였다.

15)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일치도를 평가하였다. 이렇게 일치어로 처리된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i) 규범어 설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표준어 / 문화어): 가달배무(가랑무 / 가랑무우), 골배(우렁 / 골뱅이), 검불까치(검부러기 / 검부레기), 깨찌벌(반디벌레 / 반딧불이) 등.
ii) 의미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바우옷(이끼 / 바위이끼), 봉당(먼지 / 티끌), 언들베기(언덕배기 / 비탈) 등.

16) 이 어휘들은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제시한다.(남한 가나다 순)
가달배무, 각쟁이, 갠물, 검불까치, 골배, 귀바우, 깨찌벌, 꼰들배기, 꼰지, 나루매, 냉귀, 댈갈, 둥구마리, 디미, 떼배, 마울, 막니, 말캉, 멕, 바우옷, 반주쟁이, 벅앙지, 벗니, 보가래, 보세이, 봉당, 봉두리, 살기, 세바늘, 솔튀기, 쇠괴기, 숨막질, 쉬깡, 안덜, 언들배기, 열기, 오락지, 옹내, 응뎅이, 이정, 자방침, 잠배이, 장아치, 정개이, 정낭, 제집아, 지다랗다, 팬팬하다, 가매드버이, 딸깨기, 사추리, 새추리, 외눈퉁이, 잔두, 진셍이, 패기, 나부리, 새아리다, 시아재, 택수가리, 가갭다, 가름매, 가름재, 가름질, 가법다, 가실, 가아지, 각징이, 간신, 갈강비, 갈구, 갉, 강내이, 강싱이, 개구락지, 개구막지, 개애지, 거냥, 거름뱅이, 거시, 거이, 거치뙈기, 걸금, 걸버시, 걸부생이, 겨누리, 겨댕이, 고냉이, 고냥이, 고두래미, 고망아, 곤드래미, 골방적삼, 골방쥐, 괴비, 구넝, 구목, 구무기, 구성, 구숭, 굴목, 굼묵, 귀경, 귀융, 그마리, 그양, 그이, 글거리, 기르매, 기름뱅이, 기슬가리, 깔때기, 깔챙이, 깜비기, 깨구래기, 깨구리, 꼰디서다, 꼴때기, 꽁, 꽤리, 꾸멕질, 꾹쇠, 끼뚜래미, 나룩, 나불, 나붕이, 나새이, 내금새, 놀개이, 누, 누리, 누지다, 누진뱅이, 눈괴비, 눈두더리, 뉘역, 느러, 능에, 다랭이, 다루매끼, 다리매끼, 다황, 단치, 달개다, 달꽃, 달뉘, 달롱갱이, 달루, 달룩, 달물, 달패, 달패이, 당추재, 대골, 대궁, 대리비, 댄님, 댕거지, 더데기, 더투아리, 덤부사리, 데럽다, 도꼽살이, 도꾸, 도꿉놀이, 도막지, 독새, 돌메기, 돌뛰기, 돌풀매, 돔배, 되배, 두, 두께비, 두루매기, 두르매

공통 수록 어휘의 대부분이 일치어인 반면 이들 어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통합적인 강원 방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예들은 남강원 방언과 북강원 방언의 차이와 특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일차적인 조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다시 뜻풀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의미적 연관성이 다소 존재하는 것과 의미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표 8]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공통 표제어

표제어	<우리말샘> 뜻풀이	『조선(2017)』 뜻풀이
달기가리	닭의어리	닭우리
배기대	방망이	홍두깨

기, 두제기, 두지기, 둥지리, 뒤비, 드럽다, 드릅, 드베이, 들팽이, 디디개, 디럽다, 따깡, 따배, 딸, 딸구, 때가지, 떠뜨바리, 떠뜸다, 또바리, 뜨시다, 마댕이, 마래, 마룽, 마리, 마이, 마카, 만주, 말기다, 말밤, 말뱀이, 말서스미, 매굽다, 매디, 맹길다, 머떼기, 머리캉, 머스마, 머이, 먹저구리, 먹통괴기, 먼제, 먼첨, 멀구, 메깟, 메끼, 메뛰기, 메러치, 메루치, 메물, 메이, 메투리, 며기, 며르치, 면두, 명지, 모각지, 모개, 모갱이, 모다구, 모캥이, 모퉁이, 몰개, 몰개미, 몽디, 몽생이, 뫼밀, 무굽다, 무꾸, 무끼, 무넝, 무수, 묵진이, 묵진하다, 물동오, 물두덩, 물빡, 물절, 물할미, 미기, 미꾸랑지, 미꾸리, 미넝, 미띠기, 미숩다, 밀기, 밀지울, 바각지, 바구미, 바꾸, 바당, 바드래, 바우, 바쿠, 반뒤, 방개비, 방아호박, 배차, 버드락지, 버들구다, 버들낭구, 버지미, 번더지, 벌거세이, 벙치, 베레기, 베룩, 베아리, 베째이, 보굼치, 보드래기, 복상뻬, 본도지, 본추, 볼타시, 볼투가지, 뵈키다, 부꾸, 부애, 부어이, 비디미, 비리지, 빼이, 뻔데기, 뻔새, 뿌럭지, 사그막지, 사심, 삭다리, 산둥강, 산재, 산지, 살기다, 삼태미, 상낭구, 새까래, 새꼬락지, 새닥다리, 새박, 새벅, 새이, 생오, 생키다, 성, 소곰쟁이, 소당, 소두방, 소두벙, 소드벵, 소비, 손지, 솔낭구, 솔방구리, 송아치, 솥따깡, 쇄기, 쇄아기, 쇄지, 쇠두방이, 쇠지, 쇡이다, 숨구다, 수꾸, 숭구다, 숭넌, 쉬파람, 승나다, 시겁다, 시굽다, 시다, 시더기, 시애끼, 실광, 실구, 실궝, 실기떡, 심부럼, 싯돌, 싱구다, 싱크럽다, 쌍지방아, 쌔스랑비, 쎔자리, 써다, 쓸검지, 씨겁다, 아금지, 아레, 아부지, 아즈랭이, 아지까리, 애끼다, 애눈깔퉁이, 애드라미, 애롭다, 애장간, 앤드래미, 어마이, 어머이, 어질구다, 에럽다, 여깽이, 여버리, 여서보다, 열, 열구, 영깽이, 영우, 옆차개, 옇다, 오빼미, 오짐, 옥데기, 옹가지, 욍기다, 요지움, 웅굴, 으런, 으른, 이시미, 이애기, 이파구, 입수불, 자구, 자래, 자리, 자부럼, 자우럽다, 작뒤, 잔떼, 잔체, 장개, 장대바늘, 장재뱀, 재, 재갈, 재집, 저누다, 저드랭이, 저울, 점슴, 접우티, 조고리, 조부럽다, 졸렵다, 졸루다, 주데이, 주벅, 줄, 쥐데이, 증배기, 지냑, 지둥, 지러기, 지레기, 지레이, 지르다, 지르마, 지름, 지상구, 지약, 지와, 지침, 질, 질르다, 질름배이, 질마, 질쌈, 짐, 짐성, 짐치, 짚시기, 짜굽다, 짤르다, 쨈자리, 쫑곱질, 쪄개다, 찔껭이, 찔꽁이, 차위, 참우, 참이, 참자리, 초마, 초매, 치, 치기, 칼돔배, 타시매, 택, 토매, 톰배, 퇴끼, 투가리, 파랭이, 패, 패이, 퐤기, 푸모시, 푸추, 풀솔, 하로살이, 할버이, 해자우래기, 햇아, 행지, 허리빠, 허미, 허수애비, 호뜨기, 호매이, 호무, 혹두강이, 회미, 후루마기, 후루매, 후루매기, 흥겊, 흰자우, 히푸다

표제어	<우리말샘> 뜻풀이	『조선(2017)』 뜻풀이
버랭이	자배기	버치
성님	올케	형님
장물	장국,간장	국물
채키다	차이다	채우다
멩이	모이	먹이

[표8]의 '달기가리'는 <우리말샘>과 『조선(2017)』에 각각 '닭의어리'와 '닭우리'로 다르게 풀이되어 있다. <우리말샘>의 '닭의어리'는 '나뭇가지나 싸리 따위로 엮어 닭을 넣어 두는 물건'으로 풀이되어 있고 『조선(2017)』의 '닭우리'는 '닭을 가두어기르는 우리'로 풀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미적 연관성은 있으나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17].

또한 '버랭이'는 <우리말샘>과 『조선(2017)』에 각각 '자배기'와 '버치'로 다르게 풀이되어 있다. '자배기'와 '버치'는 모두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데, '자배기'는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을, '버치'는 '자배기보다 조금 깊고 아가리가 벌어진 큰 그릇'을 가리킨다. 『조선(2017)』 역시 '자배기'와 '버치'를 등재하고 있으며 뜻풀이 차이 역시 비슷하다.

'배기대, 성님, 장물, 채키다, 멩이' 역시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의미적 연관성이 있으나 일치어로 볼 수 없는 공통 표제어로 분석하였다.

다음은 뜻풀이상 그 대상이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예들이다.

17) 한편, 『조선(2017)』에는 '닭우리'와 '닭어리'가 모두 등재되어 있으며 '닭어리'가 <우리말샘>의 '닭의어리' 뜻풀이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닭우리'와 '닭어리(닭의어리)'가 이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불일치 공통 표제어

표제어	<우리말샘> 뜻풀이	『조선(2017)』 뜻풀이
날기	벼,나루	날개
내빠달구다	내쫓다	내빼다
다구	깡다구	(윷놀이에서의) 모
두루	더러	들
망족	맷돌중쇠	망
문지	먼지	민지
베리	벼루	벼랑
세	새	혀
싸래	사레	싸리나무
올갱이	다슬기	망태기
우타	얼마나	어떻게
울미	우렁쉥이	율무
주래기	버릇	버들피리
찍개	벼훑이	집게
고치	고추	골짜기,곶
글루	그루	그리로
되리	똬리	도리여
토매기	도마	목침
고애	자두	고양이
대리미	다람쥐,대님	다리미
실겅	살강	시렁
지제기	기지개	기저귀
쫴기	좨기	덫

위 표제어들 가운데 '다구', '두루', '우타', '주래기' 등은 그 형태상 뜻풀이에 해당하는 어휘들과 음운론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우타'는 극히 적은 수에 해당하는 품사인 '부사'의 예인데, 그 의미가 '얼마나'와 '어떻게'로 그 의미와 쓰임이 완전히 다르다.

[표8]과 [표9]의 예들은 남, 북 강원 방언 분화를 확인해 볼 때 일차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자료로서 기능할 가능성 충분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자료 검색을 통해 분석을 심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단독 등재 어휘 분석

이번 장에서는 <우리말샘>과 『조선(2017)』에 등재된 표제어들 가운데 한쪽 사전에만 '강원 방언'으로 등재된 표제어들을 살펴본다. 이때, 자료의 양적,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선(2017)』에 단독 등재어만을 다루기로 한다[18].

『조선(2017)』에 등재된 강원 방언 중 <우리말샘>에 강원 방언으로 등재되지 않은 표제어는 총 473개이다. 『조선(2017)』에만 '강원 방언'으로 등재되었으므로 해당 표제어들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북쪽의 강원도를 일컫는 '북강원 방언'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19].

『조선(2017)』에 단독 등재된 강원 방언 473개 중 한 번 더 점검할 요소는 '타지역 방언'으로 공통 등재되었는지 여부이다. 방언은 그 분화 과정의 결과, 여러 지역에서 공통된 형태로 분화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언어의 변화에 있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지만 방언이 '지역'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이해되기 힘든 언어적 현상이니만큼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라면 그만큼 특정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본고에서 생각하는 어휘 목록은 1차 조사

---

18) <우리말샘>에 단독 등재되어 있는 강원 방언의 경우 그 수가 매우 많아 재분류가 필요하다. <우리말샘>의 상세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품사, 지역, 어원 등을 세분화한 후 공통 등재 강원 방언을 제외하면 남한 강원 방언일 가능성이 높은 어휘들을 손쉽게 재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굳이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19) 물론 이러한 접근과 해석은 사전의 표제어 등재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최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i) 『조선(2017)』의 '방언' 표제어의 객관적 신뢰도가 보장된다.
ii) <우리말샘>의 '방언' 표제어의 객관적 신뢰도가 보장된다.
iii) 남한의 사전과 북한의 사전에서 '강원 방언'의 집필 방향이 각각 '남강원'과 '북강원'의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었다.
연구 대상이 되는 사전들의 위 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과 북을 아우르는 강원 방언 연구를 위해서는 답사에 필요한 조사 어휘 목록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본고의 이러한 접근이 이를 위한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상이 되는 어휘 목록으로서, '강원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조선(2017)』에 단독 등재된 어휘들 가운데 타지역 방언으로 등재되지 않은 방언들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차 추출은 『조선(2017)』의 방언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즉, 『조선(2017)』의 방언 지역 정보에 '강원'지역으로 단독 등재되어 있는 어휘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출된 어휘는 총 238개이다. 이들은 『조선(2017)』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타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방언으로서, 타지역에서 방언형으로 나타나는 형태들보다 '강원 방언'의 특수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추출은 <우리말샘>의 방언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20]. 이들은 <우리말샘>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타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방언으로서, 1차 추출 표제어와 마찬가지로 타지역에서 방언형으로 나타나는 형태들보다 '강원 방언'의 특수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출된 어휘는 총 291개이다.

1차 추출과 2차 추출을 통해 마련된 어휘 목록 가운데 중복된 어휘들이 있다. 이들은 『조선(2017)』에만 등재되어 있는 강원 방언들 중에서도 『조선(2017)』과 <우리말샘>에서 다른 지역의 방언 형태로 등재되지 않은 어휘들로서, 다른 어떤 어휘들보다 '강원 방언'의 특수성이 강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북강원 방언'일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어휘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류에 해당하는 어휘는 총 181개이다[21].

---

20) 이때는 앞선 1차 추출과는 추출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앞선 추출이 '강원' 이외에 다른 지역을 포함한 것들을 제외하는 방식이었다면 2차 추출은 '강원' 이외의 지역의 방언형으로만 등재된 것들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예를 들어, "고도래미: '고드름'의 방언(충북)", "그시: '거위'의 방언(전북)" 등이 있다). 이는 강원 지역이 아닌 타지역 방언으로 등재된 경우라면 강원 방언의 특수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1) 이 어휘들은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제시한다.(괄호 안의 어휘는 『조선(2017)』의 뜻풀이에 제시된 어휘이며 대부분 북한의 문화어에 해당한다. 제시 순서는 표제어를 기준으로 품사별 가나다순으로 한다.)
깽키다(감기다) 【동】, 그쓸리다(그을리다) 【동】, 근다리다(건드리다) 【동】, 깜짝대다(까불대다)

【동】, 끄낭다(끌어안다)【동】, 나물과주다(나무라다)【동】, 내삐리다(내버리다)【동】, 낼구다(내리다)【동】, 대키주다(대주다)【동】, 설리다(서리다)【동】, 싸댕기다(싸다니다)【동】, 아리캐주다(알려주다)【동】, 안가다(하지 않다)【동】, 퉁벌다(횡재하다)【동】, 패딩기치다(팽개치다)【동】, 개래지풀(가라지풀)【명】, 거스레미돈(거스름돈)【명】, 거치기(거적)【명】, 게베기(고함)【명】, 괴밀개(고무래)【명】, 구정물께이(찌꺼기)【명】, 구투배기(구두쇠)【명】, 궁거(구멍)【명】, 귀빼기(귀때기)【명】, 그지뿌렁이(거짓부리)【명】, 글커리(그루터기)【명】, 기름쫑아리(기름쟁이)【명】, 까마지(까마귀)【명】, 깨보새(깨보숭이)【명】, 꼰뜨기(꼬니)【명】, 꾜끔하다(께끈하다)【명】, 끄나풀(끈)【명】, 끄느래기(끈)【명】, 끄챙이(끄댕이)【명】, 나루지(나루)【명】, 나무딸(나무딸기)【명】, 낙시물(기스락물)【명】, 냉건(감발)【명】, 노내끼(노끈)【명】, 눈갑비(진눈까비)【명】, 느아(돌기와)【명】, 능담(쓸개)【명】, 다굴치(눌은밥)【명】, 다드돌(다듬이돌)【명】, 다리맹이(고매끼)【명】, 달무지개(달무리)【명】, 당홀치(가마치)【명】, 더레이(더덕)【명】, 도꼽장난(소꿉놀이)【명】, 도마램(도마름)【명】, 도투메기(도투마리)【명】, 됭박(뒤웅박)【명】, 둘지기(둘치)【명】, 뒤울안뜰(뒤뜰)【명】, 들거지(그루터기)【명】, 등제(등겨)【명】, 등지리(등지)【명】, 딱딱붕어(올빼미)【명】, 딱제구리(딱따구리)【명】, 매끼질(자리개질)【명】, 맹돌(망돌)【명】, 멘밭(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밭)【명】, 명덩딸기(들딸기)【명】, 모솔(수세미오이)【명】, 무게눈(사팔뜨기)【명】, 무끔(산나물)【명】, 문디뼝(문둥이병)【명】, 미수갈그(미시가루)【명】, 반짓개(바느질그릇)【명】, 버덕지(자배기)【명】, 버데이(버덩)【명】, 버드레(버들)【명】, 버쿠(버캐)【명】, 베람싹(벽)【명】, 보매기(보막이)【명】, 보암(도토리)【명】, 부등갱이(부삽)【명】, 부스라미(부스럼)【명】, 부앙개(아궁이)【명】, 부엌강이(부엌아궁)【명】, 부지꼬재이(부지깽이)【명】, 분때기(분)【명】, 빨뿌리(물부리)【명】, 빼말나무(뽕나무)【명】, 뽐지(뽐)【명】, 삐꺼미(딸꾹질)【명】, 사발따깨(사발의 뚜껑)【명】, 산시낭(성황당)【명】, 삼자리(삼밭)【명】, 새내지(사내아이)【명】, 새차구니(사타구니)【명】, 샘무지(샘물)【명】, 서드렁(서렁)【명】, 석갓(산)【명】, 셍게리(무말랭이)【명】, 소갈찌(소갈머리)【명】, 소강(솥뚜껑)【명】, 소구숭(소구유)【명】, 소굴치(눌은밥)【명】, 소술기(소수레)【명】, 소스락눈(싸락눈)【명】, 솔가비(솔가지)【명】, 솥듸끼(가마치)【명】, 쇠껍(쇠)【명】, 쇠마당(소마당)【명】, 쇠탄(석탄)【명】, 수수적기(수수께끼)【명】, 수장(널판자)【명】, 술이(수레)【명】, 시나지(남편)【명】, 신그름(심부름)【명】, 신당나무(단풍나무)【명】, 신소리(흰소리)【명】, 신탕나무(단풍나무)【명】, 싹써기(삭정이)【명】, 쌀빵(튀밥)【명】, 썩쓰래기(오가리)【명】, 쓰렁(돌서덜)【명】, 씰썰이(귀뚜라미)【명】, 아갈(아가리)【명】, 아리랑(아가미)【명】, 아저버니(매형)【명】, 악쎄이(아가미)【명】, 약식밥(약밥)【명】, 언덜막(가팔막)【명】, 에핀네(녀편네)【명】, 여매지(오미자)【명】, 여주(쓴박)【명】, 엽낭(호주머니)【명】, 예루(열)【명】, 오짐장구(오줌장군)【명】, 옥내(옹노)【명】, 옥씨기(강냉이)【명】, 옥채(양배추)【명】, 옹새(동그랭이)【명】, 완뗑(알알이 잘 여문 일 좋은 잣)【명】, 자박세이(자박수염)【명】, 작쎄미(까끄라기)【명】, 장달방어(크기가 cm이하인 새끼방어)【명】, 장둥띄(허리띠)【명】, 저러기(도라지)【명】, 적갈(저가락)【명】, 절미떡(찹쌀떡)【명】, 조래기(노끈)【명】, 졸갱이(졸개)【명】, 주젠자(주전자)【명】, 지종새(종달새)【명】, 징쿠렁(진펄)【명】, 짠고구마(자잘한 고구마)【명】, 쪽떼기(광주리)【명】, 차무(참외)【명】, 채깝수건(머리수건)【명】, 채숭아(채송화)【명】, 코라진내(고린내)【명】, 택아리(턱)【명】, 할막따구(할머니)【명】, 할바(할아버지)【명】, 헌겊때기(헝겊붙이)【명】, 헤깐(헛간)【명】, 호래비바늘(털가막사리)【명】, 혹뚜아지(복사뼈)【명】, 혹케(혹간)【명】, 후리치기(벼훑이)【명】, 흙두구리(등디)【명】, 걸씬하면(걸핏하면)【부】, 골고리(골고루)【부】, 글미선(그러면서)【부】, 금새(금방)【부】, 긴까나(그러니까)【부】, 맹탕씨(공연히)【부】, 몽도리(모조리)【부】, 옌만침(웬만큼)【부】, 울메나(얼마나)【부】, 한바트럼(하마트면)【부】, 옹당-(옹달-)【앞】, 걀쓺하다(걀쑴하다)【형】, 또스하다(따스하다)【형】, 민구스럽다(면구스럽다)【형】,

위 181개 어휘들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어휘는 상대적으로 표제어 등재 비율이 적은 품사인 "'앞붙이'와 '부사'에 해당하는 어휘"들과 형태적·의미적으로 '방언형과 문화어형에 차이가 큰 어휘'들이다.

이들 어휘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조선(2017)』에서의 '앞붙이'는 남한어의 '접(두)사'에 해당하는 품사로서 해당 어휘는 『조선(2017)』의 40만 개 등재어 가운데 2백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22]. 거기에 더해 『조선(2017)』에 등재된 강원 방언 중 '앞붙이'에 해당하는 표제어는 단 한 개로, 명사 어휘들에 비해 희소성이 높은 어휘라 할 수 있겠다. 해당 어휘는 '옹당-(옹달-)'이다. <우리말샘>과 『조선(2017)』 모두 '옹달샘, 옹달솥, 옹달시루, 옹달우물' 등을 표준어·문화어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의미도 동일하나 북한에서 '옹달'을 접사로 보는 반면 남한에서는 접사로 보지 않는다[23]. 또한 <우리말샘>에 '옹당'이 단독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옹당새미, 옹당샘, 옹당시암 등이 타지역 방언으로 등재되어 있어 '옹당-'은 『조선(2017)』 단독 등재 강원 방언 중 <우리말샘>에 타지역 방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사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있다. 『조선(2017)』에서의 부사는 40만 개 등재어 가운데 2만여 개밖에 되지 않으며, 『조선(2017)』에 등재된 강원 방언 중 부사에 해당하는 어휘는 26개로, 역시 희소성이 높은 어휘라 할 수 있겠다.

[표 10] 북강원 방언 확인 대상 표제어 중 '부사'

표제어	『조선(2017)』 뜻풀이	남한 표준어
걸씬하면	걸핏하면	걸핏하면
골고리	골고루	골고루

밑괄시럽다(밉광스럽다) 【형】, 비조트다(비슷하다) 【형】, 시뻐르다(시뻘겋다) 【형】

22) [표3] 참조

23) [표2]를 참조하면, <우리말샘>의 강원 방언 중 접사는 총 3개이다. 이들은 모두 접미사이며 다음과 같다.

i) -가웃(-가웃), -덜(-들), -찌리(-끼리)

표제어	『조선(2017)』 뜻풀이	남한 표준어
글미선	그러면서	그러면서
금새	금방	금방
긴까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맹탕씨	공연히	공연히
몽도리	모조리	모조리
옌만침	웬만큼	웬만큼
울메나	얼마나	얼마나
한바트럼	하마트면	하마터면

다음으로 형태적·의미적으로 '방언형과 문화어형에 차이가 큰 어휘'들을 살펴본다. 형태적·의미적 차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은 음운변화에 해당하는 방언 형태', '형태만으로는 문화어를 유추할 수 없는 방언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총 77개의 동사, 형용사, 명사 어휘를 추출하였다[24].

(3) 북강원 방언 확인 대상 표제어 중 '동사', '형용사', '명사'

가. 동사 - 8개

깽키다(감기다), 근다리다(건드리다), 깜짝대다(까불대다), 끄낭다(끌어안다), 나물과주다(나무라다), 안가다(하지 않다), 퉁벌다(횡재하다), 패딩기치다(팽개치다)

나. 형용사 - 5개

걀씀하다(걀쑴하다), 또스하다(따스하다), 믿괄시럽다(밉광스럽다), 비조트다(비슷하다), 시뻐르다(시뻘겋다)

다. 명사 - 64개

게베기(고함), 구정물께이(찌꺼기), 구투배기(구두쇠), 궁거(구

24) 추출 전 전체 어휘는 '각주 2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준에 따라 재추출이 가능하다.

멍), 글커리(그루터기), 기름쫑아리(기름쟁이), 꾜끔하다(께끈하다), 낙시물(기스락물), 냉견(감발), 노내끼(노끈), 눈갑비(진눈까비), 느아(돌기와), 능담(쓸개), 다굴치(눌은밥), 다리맹이(고매끼), 당훝치(가마치), 더레이(더덕), 도꼽장난(소꿉놀이), 들거지(그루터기), 딱딱붕어(올빼미), 딱제구리(딱따구리), 매끼질(자리개질), 맹돌(망돌), 명덩딸기(들딸기), 모솔(수세미오이), 무게눈(사팔뜨기), 보암(도토리), 부앙개(아궁이), 빼말나무(뽕나무), 삐꺼미(딸꾹질), 산시낭(성황당), 새차구니(사타구니), 셍게리(무말랭이), 소강(솥뚜껑), 소굴치(눌은밥), 수수적기(수수께끼), 수장(널판자), 시나지(남편), 신그름(심부름), 신당나무(단풍나무), 신탕나무(단풍나무), 싹써기(삭정이), 쌀빵(튀밥), 썩쓰래기(오가리), 쓰렁(돌서덜), 씰씰이(귀뚜라미), 아리랑(아가미), 악째이(아가미), 여매지(오미자), 옥채(양배추), 옹새(동그랭이), 완뗑(알알이 잘 여문 제일 좋은 잣), 장달방어(크기가 0cm이하인 새끼방어), 장둥띄(허리띠), 저러기(도라지), 쪽떼기(광주리), 채깝수건(머리수건), 코라진내(고린내), 택아리(턱), 할막따구(할머니), 혹뚜아지(복사뼈), 혹케(혹간), 후리치기(벼훑이), 흙두구리(등디)

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통합적인 강원 방언 및 강원 지역어 연구를 위한 첫 단계로서 답사에 활용할 조사 어휘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한의 강원 방언과 북한의 방언 자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자료이며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최신의 사전 자료로서 <우리말샘>과 『조선(2017)』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양 사전의 규모와 등재

양상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등재된 '강원 방언'을 대상으로 이들을 비교·대조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양 사전에 등재된 강원 방언 표제어 수는 다음과 같다.

(4) 강원 방언 표제어의 등재 규모

가. <우리말샘>에 등재된 강원 방언은 총 16,362개이다.

나. 『조선(2017)』에 등재된 강원 방언은 총 1,016개이다.

양 사전에 공통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강원 방언의 규모와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5) 공통 등재 강원 방언의 규모와 특징

가. 양 사전에 공통으로 등재되어 있는 강원 방언은 총 524개이다

나. 위 '가' 가운데 양 사전의 의미가 일치하는 어휘는 494개이다.

다. 위 '가' 가운데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어휘는 30개이다. 이 중 의미적 상관성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어휘는 7개, 의미적 상관성이 전혀 없는 어휘는 23개이다.

(5나)에 해당하는 어휘는 남강원 방언인지 북강원 방언인지 남북 공통 강원 방언인지 알 수 없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어휘들 중 특징적인 것을 선별하여 남강원 방언 조사에 즉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5다)에 해당하는 어휘는 의미나 개념, 지칭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방언 조사가 가능한 시점에서 분화 양상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선(2017)』에 단독으로 등재되어 있는 강원 방언의 규모와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6)『조선(2017)』 단독 등재 강원 방언의 규모와 특징

가. 『조선(2017)』에 단독으로 등재되어 있는 강원 방언은 총 473개이다.

나. 위 '가'에서 『조선(2017)』에 타지역 방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어휘는 총 238개이다.

다. 위 '가'에서 <우리말샘>에 타지역 방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어휘는 총 291개이다.

라. 위 '나, 다'에서 중복되는 어휘는 총 181개이다.

마. 위 '라'에서 품사적으로 희소성이 높은 어휘는 부사 어휘로 총 10개이다.

바. 위 '라'에서 품사적 희소성은 높지 않으나 방언형과 문화어형에 차이가 큰 어휘는 동사, 형용사, 명사로서, 각각 8개, 5개, 64개 어휘를 선별하였다.

(6라)에 해당하는 어휘는 북강원 방언으로 분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어휘들이다. 이 가운데 (6마)와 (6바)에 해당하는 어휘는 다소 특수성이 높은 어휘들로서 향후 북한의 방언 조사가 가능한 시점에서 분화의 양상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는 많은 대규모의 자료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분석하고 분류하여 연구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과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면의 한계상 추출된 어휘의 방언학적 분석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지적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본고의 논의는 앞으로 진행할 강원 방언, 강원 지역어 연구의 첫 단계로서 확장된 연구의 기본 자료로서 그 역할을 다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郭忠求(1995), 「江原道 北部地域의 言語分化」, 『同大論叢』 25-1, 同德女子大學校, 27-58쪽.

곽충구(1995), 「황해도 및 강원도 북부지역 친족명칭의 지리적 분화와 그 역사성」, 『大東文化硏究』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09-332쪽.

김봉국(2002),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 어간말자음군의 음운론」, 『국어학』 39, 국어학회, 173-203쪽.

_____(2015), 「북한 지역어 연구의 현황과 향후 과제」, 『語文學』 130, 한국어문학회, 1-25쪽.

_____(2020), 「강원방언의 특징과 그 보존 방안」, 『인문학연구』 28,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8쪽.

김옥영(2014), 「강원도 지역어 연구사」, 『국어국문학』 166, 국어국문학회, 31-76쪽.

_____(2019), 「남북 강원지역의 방언구획」, 『국어학』 92, 국어학회, 203-239쪽.

_____(2020), 「남북 강원지역 방언분화의 언어 외적 요인」, 『방언학』 32, 한국방언학회, 221-252쪽.

김한샘(2020), 「『조선말대사전』(2017)의 거시 구조 분석」, 『한국사전학』 35, 한국사전학회, 221-249쪽.

박광길·최윤(2017), 「우리말샘(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활용한 신어 연구」, 『인문과학연구』 5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43~266쪽.

사회과학원(2017), 『조선말대사전(증보판)』 1-4,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宋天植(1993), 「조선말대사전′(1992)의 성격」, 『새국어생활』 3-4, 국립국어연구원, 13-23쪽.

이상복(1995), 「강원도 방언에 대한 고찰」, 『강원문화연구』 14, 江原大學校 江原文化硏究所, 105-129쪽.

이태영(2016), 「국어사전과 방언의 정보화」, 『국어문학』 61, 국어문학회, 51-75쪽.
정유남(2019), 「남북한 이념적 어휘와 이질화 정도 - ≪표준국어대사전≫(웹)과 ≪조선말대사전≫(증보판)(2006)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4,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37-76쪽.
정유남·이길재(2019), 「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지역어의 몇 문제 -『표준국어대사전』 (웹)과 『조선말대사전』(증보판)(2007)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34, 한국사전학회, 64-104쪽.
정희원(2004), 「남북한 국어사전 비교 - 조선말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2004년 여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7-51쪽.
한영균(1997), 「≪조선말대사전≫의 거시구조에 대하여」, 『冠嶽語文硏究』 22-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69-287쪽.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Gangwon Dialects in the Dictionari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For the headword of <urimalsaem> and 『joseonmaldaesajeon(2017)』

Choi, Youn

This is a basic data study into Gangwon dialect research. Starting with this study, the purpose is to comprehensively research the Gangwon dialect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detaile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a vocabulary list to be used for exploration of the Gangwon dialect analysis.

In Chapter 2, the scale and characteristics were confirmed by comparing <urimalsaem> and 『joseonmaldaesajeon(2017)』.

In Chapter 3, title words listed in both dictionaries are listed. Among them, vocabulary with low or no consistency was re-extracted and analyzed.

In Chapter 4, the heading words are listed only in 『joseonmal daesajeon(2017)』. Furthermore, among them, the Gangwon dialect, which is not listed as a dialect of other regions, was re-extracted and analyzed.

Through the above stud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he two dictionaries and select about 200 target words.

Key words : Local languages, dialects, Gangwon, Gangwon-do, Gangwon Local languages, dictionary, urimalsaem, joseonmaldaesajeon, Vocabulary list, lexicon.

이 논문은 2022년 1월 10일에 접수되어 2022년 1월 31일에 심사 완료되고 2022년 2월 4일에 게재 확정되었음.